



일본 운수성 주최 도쿄 FSA세미나 참가기

여인철 <한국선급 기술연구소>

지난 10월 26일에 일본 운수성 주최로 도쿄의 전일공(ANA) 호텔에서 FSA세미나가 열렸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필자 본인과 KRISO의 공인영박사, 조선대학교의 권영섭 교수가 참석하였다. FSA세미나는 대회의장 200여석의 좌석이 꽉차는 대성황속에 진행되어 일본에서의 FSA에 대한 관심도를 짐작케 하였으며 운수성 관리들 스스로도 놀랐다는 반응이었다. 이번 세미나는 1부는 IMO에서 FSA를 주도하는 핵심인물을 초청하여 FSA의 전반에 관한 설명, 2부는 일본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와 향후 과제 등에 관한 설명, 3부는 IMO에서의 FSA 활용전망에 대한 Panel Discussion을 갖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FSA를 자국 내에 근본부터 전파하기 위한 운수성의 노력이 엿보이는 행사였으며 전 일본의 해사관련기관의 힘이 한곳으로 결집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일본의 FSA 연구성과에 대하여는, 95년에 시작하여 올해 99년에 종결되는 RR42 (확률론적 안전평가 방법의 연구 작업반), 올해부터 시작하는 RR49 (선박의 종합안전평가에 관한 연구 작업반), RR74 (FSA의 산적화물선에의 적용연구를 위한 작업반), RR79 (해난사고에서의 인적요인, 운항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작업반)등에서 큰 실적을 꾸준히 내고 있으며 전 일본의 조선해양 관련대학, 해운산업체, 연구소 등에서의 참여 인력 규모는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그 연구성과의 질과 양도 가히 전 유럽의 연구 성과를 합한 것보다도 더 깊고 방대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우리의 Counterpart라 할 수 있는 일본해사협회(NK)에서도 위의 작업반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었다. 연구소 뿐만 아니라 본부의 기술부서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하는데 이번 세미나에도 현회장, 전회장, 국제선급연합회의 Council Member를 비롯하여 연구소장, 개발부장 (현 RR74의장)등 20여명이 참가하여 NK가 큰 관심을 갖고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NK에서는 Council Member이하 임원과 부서장급등 20명의 간부로 구성된 FSA Study Group이 있어 전 간부진이 FSA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리셉션 때 미쓰비시 조선소의 한 연구원이 필자에게 다가와 미쓰비시 조선소에서는 선박과 해양구조물에의 FSA적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의 조선소에서는 어떻게 FSA에 대해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어 난감하였다. 이는 바가 없어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는데 그는 FSO, FPSO를 한국조선소에서 많이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의아함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영국의 MSA (Marine Safety Agency, 지금의 MCA)에 있으면서 IMO에서의 FSA 도입을 처음부터 주도한 Mr. Peachey 그리고 일본 운수성관리, NK 직원들은 우리나라 조선해운분야와 우리 선급에서의 FSA연구 과제와 그 결과 그리고 향후 계획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필자는 이에 대하여 별 할말을 찾지 못하였다. 그저 현재 한국

선급에서 국내 대학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2개의 Project를 언급하고 계속 연구할 계획이라는 정도로 밖에 얘기할 것이 없었다. 우리나라의 조선해운계에서 FSA가 별다른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에서의 관심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영국의 Peachey는 특히 현재 IMO에서 영국의 MCA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Bulk Carrier Work Package에 한국의 기여가 크게 요구, 기대 된다면 한국측의 참여여부와 참여한다면 어느 부분에 참여할 것인지 등을 상세히 물었으나 대답하기가 참으로 곤혹스러웠다.

이번 세미나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은 일본이, 새로이 MSC 의장으로 선임되어 앞으로 MSC를 끌어 나갈 핵심인사인 영국의 Allan과 그의 FSA 관련인사를 초청, 환대 한 것은 (세미나 후 27일 교토 관광, 28일 조선소 방문) 그들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 들여 앞으로의 IMO에서의 활동에 유리

한 입장을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IMO 총회 장면이 떠올랐다. 우리도 애를 써야 하는데... 1995년부터 시작한 RR42가 올해로 끝나 FSA연구에 대한 기초를 다진 상태에서 또 다시 일본내 거의 모든 해사관련기관이 총동원 돼 99년부터 3개의 초대형 프로젝트 (RR49, RR74, RR79)가 시작된 것을 볼 때 일본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참으로 부러웠다. 일본이 비단 조선해운 분야만이 저렇지는 않을 것이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저렇듯 오메가 시계의 톱니바퀴 돌아가듯 돌아갈텐데...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엄청난 상황을 직접 목격하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깊은 자괴감을 느꼈으며 구한말 일본을 방문해 돌아본 우리의 개화파의 마음이 이러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쓸쓸하였다.

● ICHD2000 ●

(The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ydrodynamics)

- ICHD(International Conference on Hydrodynamics)는 유체역학에 관련된 공학자와 과학자들의 지식,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제회의입니다.
- 학술회의에서 주로 다루는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선, 해양공학	2. 연안공학	3. 환경, 수자원 공학
4. 산업유체, 열 전달	5. 전산유체	6. 유체역학의 기본 연구
- 차기대회 개최장소 및 일정안내

1. 장소 : 일본 요코하마		
2. 일자 : 2000년 9월 7~9일		
3. 추진일정 :	1 페이지 논문초록 (3부)	- 1999. 9. 30
	잠정수락 통보	- 1999. 11. 15
	6페이지 심사용 논문	- 2000. 2. 15
	최종수락 통보	- 2000. 5. 31
	조기등록	- 2000. 6. 30
- ICHD2000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거나 Web-site를 참조하세요.
 Address : ICHD2000 Secretariat(prof. Kazuo Suzuki)
 Dept.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Yokohama National University
 Yokohama 240-8501, Japan
 E-Mail : ichd20sec@mhl.shp.ynu.ac.jp
 Fax : +81-45-339-4099
 Web-site : <http://www.ichd20.shp.ynu.ac.jp/>